

흡연·음주 어른에 놀이터 빼앗긴 아이들

광주 어린이놀이시설 2386개 관리 주체 제각각에 방치 흡연 단속 0건...대낮 술판도 어린이 대상 2차 사고 우려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어린이 놀이터. 5~7세 안팎의 미취학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한 쪽에서 40대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나 홀로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다른 쪽에선 놀이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흡연을 하는 성인 남자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 밑에는 담배꽂초와 흡이 뒤엎겨 있었다. 그네 타던 아이들이 담배꽂초와 섞인 흙을 발로 차고, 흙놀이를 하고 있었다. 놀이터 옆 의자에는 빈맥주캔과 소주병도 놓여있었다.

특히 전남대학교 후문 앞 음식점 밑집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미끄럼틀조차 사용할 수 없었다. 이미 주변이 집단흡연 장소로 변질한데다, 미끄럼틀 곳곳에 음주 후 구토를 한 흔적과 짐을 뺐은 자국 등 각종 이물질이 뒤섞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20여만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최소한의 공간마저 빼앗기고 있다.

놀이터 관리주체가 제각각인데다, 공적 사회의 만능적 변명인 '예산·인력난' 등으로 관리 자체가 안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흡연·음주 공간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 등은 2년마다 정기·수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양호 판정'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내 음주에 대한 단속기준도 없는 탓에 음주행위를 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수 없어 자칫 음주 후 어린



광주시 광산구의 어린이놀이이터에서 한 남성이 흡연하고 있다. 놀이터 옆 쉼터에선 또 다른 남성이 음주를 하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한 2차 사고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호주 등 선진국에서 공원 내에서 술병조차도 노출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각 구청,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내 어린이 놀이 시설은 주택단지 1213개, 어린이집 322개, 도시공원 321개, 유치원 280개, 학교 162개, 등 2386개에 이른다. 구별로 광산구가 747개로 가장 많고, 북구 700개, 서구 458개, 남구 350개, 동구 131개 순이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시설)의 관리 주체가 3개 단계로 나뉘는 바람에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자치구의 공원복지과에서,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서, 아파트는 시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주택단지과 학교 인근에 있어 금연구역(과태료 10만원)임에도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애완견의 배설물 등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마저도 단속사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과태료 대상인 흡연과 달리 어린이 놀이터 내 음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어린이 놀이시설 옆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어른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자녀들이 뛰어놀 공간을 빼앗긴 부모들

의 마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7세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안민주(38·북구 중흥동)씨는 "놀이터에 담배꽂초는 기본이고 애완견 배설물 등도 많아 유료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았다"면서 "이마저도 쉽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다, 비용부담은 물론 실외인 집 앞 놀이터에서 수시로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욕구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386개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전부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공원 내 환경정리 등은 해당 자치구 소관인 만큼 자치구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했지만, 모두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현영기자 young@

사람잡은 보이콧

범죄 가담 광주 20대 女 법원 소환장 받고 목숨 끊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서민의 돈을 뺏는 것도 모자라 20대 여성의 목숨까지 스스로 끊게 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콧 징벌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4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14년 8~11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콧 조직에 가입, 콜센터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오는 13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최근 인천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소환장을 받은 직후부터 A씨는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방 책상 위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이 놓여있었다.

반성문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돈도 벌고 여행도 할 겸 필리핀을 찾아 보이콧 범죄에 가담했다. 비록 나쁜 짓인 줄 알고 범죄에 가담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A씨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청년들이 보이콧 조직에 가입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 등에서 '함께 돈을 벌어보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콧 조직원이 되는 사례도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5월 기준 보이콧 범죄 피해는 광주의 경우 111건 16억 7000만원이 발생해 470명을 검거하고 54명을 구속했으며, 전남은 118건 9억원이 발생해 273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크게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칭형으로 구분되는데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해준다거나 개인 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인 만큼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심판 현금 수수·사업 입찰 비리 의혹 관련 문체부, KBO 검찰 고발·회계감사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심판 현금 수수 및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하기로 했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KBO는 최모 심판이 두산·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종결한 점, 송금계좌를 확보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 한 점 등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파악,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가 최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문체부는 또 국고 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논밭에 제초제 마구잡이 살포한 '동네 조폭' 쇠고랑

농촌마을에서 친인척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농작물에 수시로 제초제를 살포해 말라죽게 한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무안경찰은 6일 "발작물에 농약을 살포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재물손괴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소한 마찰이나 감정이 있는 동네 주민의 논밭에 총 14회나 농약인 제초제를 살포해 1700만원 상당의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을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양파 등 농작물을 훔쳐 판매하는가 하면 자신의 수확이 저조할 경우 다른 사람의 발작물을 훔쳐 자신의 밭에

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 주인에게 발각돼 훈계 등을 받으면 제초제 살포 등 보복에 나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자신의 고향으로 귀농한 A씨는 지난 2014년께 한차례 제초제 살포 등의 혐의로 적발됐지만 "농약의 성분이 검출이 안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의 행위가 반복되자 밭에 CCTV까지 설치한 끝에 A씨의 범행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전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의 전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A씨는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에서 "10여일간 남악에 사는 주민들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있는 주민들에게 '박준영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주면 120만원을 주겠다"며 3명에게 360만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주민들에게 의례적인 말을 넣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 증언과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김씨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텔런트 한정국씨, 투신 자살 기도자 구조 '화제'

○...텔런트 한정국(사진)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경찰과 힘을 합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살 기도자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

○6일 부산 사상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사상구 괴법동 강변나들고에서 A(49)씨가 난간 밖으로 나가 10m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마침 이 다리를 건너 삼락생태공원의

로 산책하러 가던 한씨와 편의점을 운영하는 신법석(31)씨가 발견해 A씨를 향해 몸을 날려 붙잡아 구조.

○...이들은 A씨가 커트칼로 손을 찌를 듯이 위협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틴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조에 성공.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아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